

# 오늘의 주요기사

2023 1 11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의회

江原日報		가	,	...	1	
江原日報		가	,	...	2	
강원도민일보	04	· 가 "		...	2	
江原日報		協		...	3	
강원도민일보	27	"		"	4	
강원도민일보		[	]	"	...	5
江原日報	10A				6	
江原日報	16				6	
신아일보	2023				7	
		- ' ,		[1/4]	8	
		- ' ,		[2/4]	9	
		- ' ,		[3/4]	10	
		- ' ,		[4/4]	11	
강원도민일보	12	[ ] ( )			12	
江原日報		[ ]			12	
강원도민일보		[ ]	60	...	13	
강원도민일보		[ ]	60	...	14	
江原日報		[ ]			15	
한겨레	50	...		[1/2]	16	
한겨레	50	...		[2/2]	17	
江原日報	01		181		18	
江原日報	02		181		18	
江原日報	02	"	.	"	19	
강원도민일보	17		3 5		20	
강원도민일보	21	[ ]	,	가	21	
江原日報	19	[ ]	가,		22	

# 江原日報

## 일본 나가노현의회 한일친선촉진위원연맹, 강원도의의회 방문



일본 나가노현의회 한일친선촉진의원연맹(회장:하기와라 키요시 의원) 방한단이 10일 오후 강원도의의회를 방문해 상호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 江原日報

2023 01 10 ( )

일본 나가노현의회 한일친선축진의원연맹(회장:하기와라 키요시 의원) 방한단이 10일 오후 강원도의회를 방문해 상호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일본 나가노현의회 한일친선축진의원연맹(회장:하기와라 키요시 의원) 방한단이 10일 오후 강원도의회를 찾았다. 양 도의회간의 우호교류협력 활성화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서다.

이번 방문은 2018년 9월 강원도의회와 나가노현의회 방문 이후 코로나19로 중단되었고 3년 만에 폭넓은 교류활동을 재개하기 위해 이뤄졌다. 코로나19로 인해 공백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환담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이뤄졌다. 양측은 동계올림픽 시설 사후활용과 농업, 관광 등 다양한 분야 교류를 통해 상호협력 관계를 구축하겠다고 다짐했다.

권혁열 도의장은 "강원도와 나가노현은 동계올림픽 개최를 비롯해 많은 공통점이 있는 만큼 더욱 친밀하게 느껴진다며 "올해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원년이다. 성공 출범을 위해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 강원도민일보

2023 01 11 ( )  
04

### 도의회·일 나가노현의회 “강원청소년올림픽 성공 개최 협력”

#### 지리적 특성 비슷 상호교류 확대

강원도의회가 일본 나가노현의회와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성공 개최 등을 위해 우호교류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강원도의회(의장 권혁열)는 10일 도의회 의장실에서 나가노현 의회 대표단과 환담을 가졌다. 환담에는 권혁열 도의장, 이기찬·김기홍 부의장과 하기와라키요시한일친선축진의원연맹 회장, 마루야마 에이이치 의장 등 양측 의회 의원 및 관계들이 참석했다.

권 의장은 “강원도와 나가노현은 동계올림픽 개최 경험이 있고, 눈이 많이 내리는 등 지리적 특징이 비슷하다”며 “2023강원세계산림엑스포와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나가노현 의회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일본 하기와라 키요시 한일친선축진의원연맹 회장과 나가노현 의회 대표단들은 10일 강원도의회를 방문, 권혁열 도의장, 이기찬·김기홍 부의장과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성공 개최 등을 위해 우호교류 협력 활성화 방안 등을 협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영

이에하기와라키요시한일친선축진의원연맹 회장은 “나가노현 의회가 강원도의회와 협의해 4년마다 상호 의회 및 지역 방문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코로나19가 상황으로 중단된 양 의회 교류 활동이 재개될 수 있도록 한일친

선연맹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 의회는 지난 2015년 실무 협의 이후 교류를 시작으로, 2018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전후해 3차례 상호 의회 교류방문을 이어왔다.

김덕형 duckbro@kado.net

# 江原日報

## 강원도사회복지協 도민 밀착형 사회복지 만들 도록 노력할 것

강원도사회복지협의회, 2023 강원도사회복지인 신년교례회  
김 지사 올해 복지에산 전체 30%... 따뜻한 복지 추구하겠다



강원도 사회복지인 신년교례회가 10일 춘천 세종호텔에서 홍기종 도사회복지협의회장, 김진태 지사, 권혁열 도의장, 신경호 교육감, 박진오 강원일보 사장, 이건설 대한노인회 도연합회장을 비롯한 내빈과 사회복지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신세희기자

강원도사회복지협의회는 10일 춘천 세종호텔 별관에서 '2023 강원도사회복지인 신년교례회'를 열고 계묘년 새해에는 사회혁신과 가치 창출을 통해 지역 복지 공동체를 만들어가자고 다짐했다.

이날 행사는 신년사와 격려사, 벨엘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의 합창 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홍기종 회장은 올해 도사회복지협의회는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슬로건을 내세워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더 밀접한 사회복지를 만들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올 6월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에 발맞춰 복지 현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태 도지사는 강원도 올 초 예산 8조7,000억원 중 2조6,500억원을 복지 예산으로 편성했다. 약 30%에 달하는 비율로, 정부에서 편성한 17%의 두 배에 달하는 예산이라며 올해 보육시설 지원 예산 295억원, 장애인돌봄지원 100억원 등을 증액한 만큼 강원도는 따뜻한 복지를 추구하고 있음을 알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혁열 도의장은 강원도는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춥고 외로운 겨울을 보내는 도민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상황 속에서도 도민의 편의를 위해 헌신하고 계신 사회복지 종사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했다.

신경호 교육감은 우리 아이들의 돌봄과 방과후교육도 사회복지와 긴밀한 관계가 있다며 올해는 춘천에 있는 노인 복지관과 연계해 어르신들에게 듣는 인성교육, 어르신과 함께하는 방과후 교육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건설 도노인회장은 건배사를 통해 오는 6월 새롭게 시작되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을 기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박진오 강원일보 사장, 허인구 G1방송 사장, 정재웅 도의회 사회문화위원장, 이은영 도사회서비스원 원장, 유계식 강원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을 비롯한 사회복지 종사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 강원도민일보

2023 01 11 ( )  
27

## “복지수요 따른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힘쓰겠다”

도사회복지협의회 신년교례회  
지역복지 시스템 강화 다짐  
어린이 합창·성악 공연 이어져

강원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홍기중)는 10일 춘천 세종호텔에서 2023년 강원도 사회복지인 신년교례회를 개최, 강원특별자치도 시대에 걸맞은 지역 복지시스템 강화를 다짐했다.

이날 교례회에는 홍기중도사회복지협의회장과 이건설 도노인회장, 유계식 강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이정식 강원도장애인단체연합회장 등 도단위 및 시·군 사회복지기관·단체장과 전문가 및 종사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강원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홍기중) 2023년 신년인사회가 10일 춘천 세종호텔에서 김진태 도지사, 권혁열 도의회의장, 신경호 도교육감,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회장과 18개 시군 사회복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홍기중 회장은 신년사에서 “도내 각종 직능단체와 함께 복지수요에 따른 인·물적 공급과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힘쓰겠다”며 “복지현장에서도 강

원특별자치도의 모습이 발현되도록 지역 복지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김진태 도지사는 “긴축재정 속에서도 강원도는 건전한 재정과 따뜻한 복

지를 추구하겠다”며 “장기근속종사자 휴가제와 수당 증액 등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예산도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신경호도교육감은 “장애인이 홀로서는 터전 마련을 위한 강원특수교육원 유치경쟁을 보며 인식이 크게 개선된 것을 느낀다. 아동과 어르신 세대가 어우러지는 프로그램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권혁열 의장은 “도민의 복지증진에 힘쓰는 사회복지계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도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수어통역과 함께 진행된 행사에서는 춘천 벨엘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들의 합창과 원흥현 성악가의 축하공연도 이어졌다. 강주영

# 강원도민일보

## [고향사랑 기부제 범국민 캠페인] “고향 사랑 마음 모여 행복한 복지 공동체 조성 이어지길”

김진형

강원 사회복지계 캠페인 동참  
도 사회복지인 신년교례회 개최  
도사회복지협의회 참여 다짐  
재정·복지체계 구축 기여 기대



▲ 홍기종 강원도사회복지협의회장과 김진태 도지사, 권혁열 도의회의장, 신경호 도교육감,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회장을 비롯한 강원지역 18개 시·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기관장들이 10일 춘천세종호텔에서 고향사랑 기부제에 범국민 캠페인에 참여했다. 서영

강원지역 사회복지인들이 새해 시작된 ‘고향사랑 기부제 범국민 캠페인’에 동참, 제도의 성공적 정착에 따른 지역 복지시스템 강화를 기원했다.

강원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홍기종)는 10일 춘천 세종호텔에서 열린 2023년 강원도 사회복지인 신년교례회 자리에서 ‘고향사랑 기부제 범국민 캠페인’ 참여를 다짐했다.

홍기종 도사회복지협의회장과 도내 시·군사회복지협의회장을 비롯한 사회복지기관·단체장, 김진태 도지사와 권혁열 도의회 의장, 신경호 도교육감,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교례회에서는 강원 사회복지계의 발전과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을 기원했다.

특히 사회복지인들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원년을 맞아 강원도·강원도민회중앙회·강원도민일보가 새해에 공동 기획, 전국 처음 진행하는 캠페인 취지에 공감했다. 강원도와 18개 시·군의 열악한 재정 확충과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해 만들어진 이번 제도가 지역 발전과 탄탄한 복지 체계 구축에 기여하기를 희망했다.

홍기종 회장은 “새해 모이는 고향사랑의 마음들이 강원특별자치도 성공과 행복한 지역 복지공동체 만들기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이건설 도노인회장은 “고향사랑 기부제는 강원도의 번창과 화합을 위해 마련된만큼 노인회 차원에서도 적극 홍보하고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형·강주영

formation@kado.net

# 江原日報

2023 01 11 ( )

10A



**홍천읍번영회 新年교례회 개최** 홍천읍번영회(회장:남궁호선)는 지난 9일 홍천읍행정복지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이영욱 도의원, 용준식·황경화 군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新年교례회를 개최했다.

# 江原日報

2023 01 11 ( )

16



**철원군여성단체협의회 新年인사회** 철원군여성단체협의회(회장:최계숙)는 10일 철원군평생학습관에서 2023년 新年인사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한기호 국회의원, 이현중 군수, 김정수·엄기호 도의원, 박기준 군의장을 비롯한 철원군의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2023 01 10 ( )

## 신아일보

# 202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홍천군협의회 신년인사회 개최

조덕경 기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홍천군협의회는 2023년 신년인사회가 1월 10일 K컨벤션센터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홍천군협의회는 2023년 신년인사회가 10일 K컨벤션센터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홍천군협의회가 주관으로 신영재군수, 최이경 부의장, 이영욱 도의원, 박주선 문화원장, 용준식, 나기호, 이광재, 김광수, 황경화 군의원, 최재경 고문, 양태호 고문, 최상덕 강원평화포럼위원, 이영복 여협회장, 이규성 중소기업 홍천군융합회장 등 각 기관사회단체장이 참석했다.

[신아일보] 조덕경 기자

jogi4448@naver.com

2023 01 10 ( )

## 강원철원-‘여성의 힘’ 군정 발전의 원동력·동반자

여성단체협의회, 신년 인사회 개최

만물의 번영과 성장을 상징하는 영물, 검은 토끼의 해인 계묘년 새해를 맞아 철원군여성단체협의회(회장 최계숙)는 10일 오전 11시 철원군평생학습관 강당에서 2023년 신년인사회를 열었다.



희망의 철원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토대를 다지는 화합의 장인 여형 신년 인사회에는 이현종 군수 부부와 한기호 국회의원 부부, 김정수·엄기호 도의원, 박기준 군의장 등 철원군의원, 지역 기관 및 단체장, 협의회 회원 등 50여명이 참석해 덕담을 건네고 지역 발전을 다짐했다.

이 자리에서 최계숙 회장은 “여성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철원군 발전의 주춧돌이 되고, 15개 회원단체들의 건강한 활동으로 철원군민을 어머니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하자”고 신년사를 전했다.



이현중 군수는 “여성의 힘은 철원군정 발전의 원동력이며 동반자”라며 “여협의 발전이 철원의 발전이며, 철원 행복시대의 첫걸음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행복한 철원을 만드는 리더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한기호 국회의원은 “군복을 입은 젊은 시절에는 국가에 충성했는데 이제는 여성에게 충성하고 있다”며 “철원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 서로 서로 사랑하고, 모두가 행복한 삶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했다.



박기준 군의회 의장은 “검은 토끼의 해 계묘년에는 군의회 모두가 귀를 쫑긋하게 세우고 주민들의 작은 소리도 소중하게 듣는 군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여성의 따듯한 마음과 손길로 철원군의 발전과 주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여협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덕담을 전했다.

한편 이날 신년 인사회에서는 참석 내빈과 15개 여성단체협의회장 등 임원들이 모두 덕담을 나누며 2023년 한해 철원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기원했다.

◆ 철원군여성단체협의회 2023년 신년 인사회 이모저모 ◆





2023 01 10 ( )



최종섭 기자 (cjs8532@hanmail.net)

## 강원도민일보

2023 01 11 ( )  
12



심오섭(강릉)도의원  
은11일오  
전11시홍  
제동주민

센터에서 열리는 주민  
자치위원회 1월 정기  
회의에 참석한다.

2023 01 10 ( )

## 江原日報

### [동정] 강원도의원

심오섭(강릉) 강원도 의원은 11일 오전 11시 강릉시 홍제동주민센터 2층에서 열리는 홍제동 주민자치위원회 1월 정기회의에 참석.

홍성기(홍천) 강원도 의원은 11일 오후 4시 크리스탈컨벤션웨딩홀 4층 드레스가든에서 열리는 홍천소방서 여성의용소방대 연합회장 및 대장 이.취임식에 참석.

지광천(평창) 강원도 의원은 11일 오전 11시 평창소방서에서 열리는 평창군 여성의용소방대장 이.취임식에 참석.

## 강원도민일보

# [의정칼럼] 속초시 승격 60주년 구도심 균형발전 원년으로

강정호

낙후된 복부권 활성화 되어야  
 시청사 이전 시민 동의 가능  
 서울서 속초 2시간 소요되는데  
 속초 시내서 설악산 2시간  
 당장 이 오명 벗어나야



강정호 강원도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강원특별자치도의 원년이자 속초시 승격 60주년이 되는 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았다.

민선 8기 김진태 강원도정의 3대 방침인 인구 200만, 지역내총생산 100조원, 사통팔달 수도권 강원시대의 달성을 위해 속초시를 주목해 본다. 지난해 10월 대통령이 직접 착공식에 참석해 차질없는 사업을 약속한 동서고속화철도와 2027년 개통을 위해 함께 진행중인 동해북부선, 그리고 전국3개 자치단체가 선정된 역세권 투자선도지역 발표 등 속초의 미래를 바꿀 큰 사업들이 확정되고 있다. 그 외에도 ITS(지능형교통체계구축)사업과 디지털트윈 국토시범사업 공모선정, ICT스포츠 콘텐츠 체험시설 유치와 화채마을 도시재생사업 확정 등의 국비사업이 선정됨으로써 시승격 60주년을 맞는 2023년은 속초시의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민선8기 이병선 시장의 공약사업들이 하나둘씩 성과를 보이고 있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응원하며 많은 기대를 해 본다. 이러한 시너지 속에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분명히 있다. 역세권을 중심으로 신도시가 건설되고 속초시는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글로벌 해양관광도시가 되겠지만, 속초시의 최북단 영랑동을 중심으로 한 구도심과 최남단 설악산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를 해결하지 않고 속초시의 발전을 논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그래서 제안한다. 속초시 승격 60주년을 맞는 2023년은 속초시 균형발전의 원년이 되어야 한다. 이병선 속초시장의 선거 공약집과 인수위 백서를 다시 한 번 살펴보니, 다행히 그 구상이 준비되어 있고, 신속히 실천에 옮기면 된다.

## 강원도민일보

2023 01 11 ( )

영랑동 등의 구도심의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군사시설보호구역·공업지역·고도제한 등)를 해소하고, 영랑동 해안도로를 확장하며, 한때 동해안 최대의 수산물 판매단지인 동명항 주차장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것. 천혜의 보물 영랑호의 현 순환도로를 시민의 산책로로 돌려주고 후면에 자동차전용도로를 개설해 속초시 북부권의 활성화를 이루는 일. 연간 1800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속초시의 핫 플레이스인 중앙시장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중앙시장에서 갯배를 타고 청호동을 다녀오는 관광객이 더 머무를 수 있는 인프라를 확충해 청호동 지역 경기를 함께 회복시키는 방안.

최근 6~7년간 투자가 남부권에 몰리면서 소외됐던 중부권과 북부권에 행정력을 집중해 결국 속초의 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는 것이 오늘날 발전된 속초를 이끈 시민들의 목소리다.

세계 최대의 명산 설악산과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설악동은 어떠한가? 과거 수학여행 등 관광객으로 북적이던 설악동 주변의 상가들은 손님이 없어 폐업하고 있고, 저녁에는 사람 한명도 지나가지 않을 정도로 된 지 30년이 지났다. 지역의 이양수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설악동 재건사업 264억원 정도가 본격 투입된다는 희망적인 소식도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여기저기도 들린다.

동해고속도로 확장과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으로 수도권과의 접근성은 좋아졌고 2027년 양대 철도가 개통되면 아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관광객이 올 것이다. 특히 가을 단풍시기가 되면, 설악산만이 가지고 있는 형형색색의 단풍을 보기 위해 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온다. 지난해 한 지상파 방송에서 설악산의 정체문제를 보도할 때 인터뷰한 관광객의 다음과 같은 소화에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다. “서울에서 속초까지 오는데 2시간 걸렸고, 설악산 입구에서 소공원까지 가는데 2시간이 걸렸습니다.”

2023년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를 해결해야 한다. 산·바다·호수·온천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물려받은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도시 속초시! 세계 최고의 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그리고 그 목표의 중심은 속초시민이고 결과 또한 속초시민의 행복이 되어야 한다. 강한 의지로 정성을 다하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금석위개(金石爲開)의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 江原日報

## [확대경]소양강에 흐르는 눈물

박기영 도의회 안전건설위원장



춘천시에 사는 김복산면(가명)씨 가족은 명절에 찾아갈 고향이 없다. 성묘를 해야 할 조상묘도 없다. 아니 있었는데 없어졌다는 표현이 맞을 것이다. 1966년 소양강댐 건설로 춘천을 비롯한 양구, 인제 등 3개 지역 6개 면 37개 리가 수몰됐고, 국가 정책이라는 미명하에 2만 3,000여명이 수몰민이 되어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반강제로 이주되었기 때문이다.

소양강댐으로 인한 수몰민의 슬픔은 이뿐만이 아니다. 현재까지 소양강댐 주변지역 230의 면적이 축사조차 지을 수 없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지역발전이 원천적으로 차단돼 왔고 약 2배 가까이 늘어난 안개 및 서리일수에 따른 호흡기 질환 등도 증가했다. 농작물 피해 및 농업소득 감소, 생태계 파괴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신체상·재산상의 피해도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피해에 대해 강원연구원에서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50년간의 소양강댐 주변지역 피해를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10조1,500억원에 달한다. 그렇다면 정부는 50년간 소양강댐 주변 피해지역을 위해 무엇을 해주었는지가 참으로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양강댐의 전기 생산 및 용수 공급에 따른 50년간 수입금은 약 9조4,330억원으로 추정되며 최근 5년 기준으로 매년 1,900억원에 따른 수입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금은 지난해 78억원으로 수입액의 약 3.8%에 불과하다고 하니 소양강댐으로 인한 피해지역 주민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눈물이 앞을 가릴 수 밖에 없다.

과거 박정희 대통령은 3대 국책사업 중의 하나로 소양강댐을 건설했고 이를 통해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 소양강댐이 대한민국 발전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에 누구도 이견을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지난 50년간 정부의 처사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한 소양강댐 피해주민들을 방치했으며 그들의 가슴에 씻기지 않을 아픔을 남겼고 이러한 아픔은 현재 계속 진행 중이다. '국가의 경제를 위해 일방적으로 희생을 감내해 온 피해지역 주민들에게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

이에 따라 최근 정부가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다목적댐 수자원 관리 권한을 유역 지방자치단체와 나눠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강원도와 충청북도는 국회에서 '댐 주변 지역 피해에 대한 정당한 지원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으며 '댐 주변지역 지원제도 개선 및 규제완화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열었다.

소양강댐과 관련해 정부의 회복가능한 지원에 대하여 많은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회토론회에서 강원연구원의 책임연구원은 중앙정부의 다목적댐 관리권을 지방으로 분배해야 한다고 하며 '댐을 광역시도의 소유로 한다. 다만 관리는 공동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댐건설관리법 개정을 주장했다. 강원도의원인 필자 또한 이러한 주장에 동의하는 바 더 늦기 전에 소양강댐의 사용권을 강원도가 되돌려 받아 소양강댐으로 인해 눈물을 흘리는 강원도민들이 다시금 활짝 웃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소망해본다.

# 한겨레

## 50년 규제 풀어야 ...물 권리 확보 나선 강원. 충북



### 164만 충북도민을 위해

조길형 충주시장(앞줄 가운데) 등이 지난해 9월 국회에서 물 사용 권리 확보를 주장하고 있다. 충주시 제공 저수량 기준 전국 1.2위인 소양강댐과 충주댐을 관리하는 강원도와 충북도가 '물 권리 확보에 한창이다. 댐 운영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에 건줘 받는 출연금이 작을뿐더러 각종 환경 규제로 지역 경제도 침체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공익성에 걸맞은 인센티브도 강화돼야 한다고 이들은 주장한다.

충북도는 10일 충주·소양강댐 등 충북·강원의 수자원이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바탕이 됐지만 정작 댐 주변 지역은 수몰, 각종 규제 등으로 발전이 더디면서 소멸 위기로 내몰렸다고 하며 정부는 현실에 맞게 규제를 풀고, 국회 등은 댐 관련 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강원·충북도는 지난해 12월 27일 두 지역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들과 함께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를 열어 물 권리 운동의 전국 이슈화에 나서기도 했다.

이들은 우선 댐이 벌어들이는 수입 규모에 건줘 턱없이 작은 출연금을 문제 삼는다. 강병우 충북도 상수도팀장은 소양강댐은 물론 충주댐은 조성한 지 오래된 터라 건설 비용을 훨씬 뛰어넘는 수입이 있지만 실제 댐 건설·유지로 피해를 본 지역에 주는 보상·지원은 쥐꼬리라며 무엇보다 댐 수입에 따른 출연금 전액(약 407억원)을 자치단체에 주는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강원도와 충북도가 함께 작성한 자료를 보면, 소양강댐과 충주댐이 용수 공급과 발전을 통해 한해 동안 벌어들이는 수입은 모두 약 2600억원이다. 이는 한국수자원공사(케이워터)가 관리하는 전국 댐 27곳 전체 수입의 절반을 웃도는 규모다. 반면 강원과 충주가 받는 출연금은 모두 101억원이다. 모든 댐에서 발생하는 수입의 일정 비율(발전 6%, 용수 22%)을 떼어내 출연금 총액을 정한 뒤 절반은 수자원공사가, 나머지 절반은 댐이 있는 전국 자치단체가 나눠 갖는 배분 제도 때문이다.

댐 소유·관리권을 자치단체가 가져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 현재는 소유권은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그 내용에 따라 수자원공사와 자치단체가 나눠 맡는 구조다. 박기영 강원도의의원(국민의힘)은 소양강댐 건설로 50가 수몰하면서 2만여명이 실향했고, 50년 동안 각종 규제 등으로 10조원 이상 피해를 봤다는 연구가 있다며 이제 무형자산인 소양강댐 사용권을 강원도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 한겨레

2023 01 10 ( )

지역사회와 자치단체의 반발로 정부 계획이 수정되는 경우도 있다. 한 예가 ‘충주댐 계통 광역 상수도 1.2단계 사업 이다. 애초 정부는 충주댐 용수 45만톤(t) 중 37%에 해당하는 16만 4900톤을 에스케이(SK)하이닉스 공장이 있는 이천 등 경기권에 공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역사회의 반발을 고려해 2025년까지 경기 지역 공급량을 애초 계획보다 절반 수준(8만 7300톤)으로 줄이기로 했다.

물값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곳도 있다. 대청댐 물을 끌어 쓰는 청주시는 갈수기 6개월(1~3월, 10~12월) 동안 대청댐에서 하루 8만톤의 물을 받고 물값 명목으로 약 8천만원을 내고 있다. 임찬규 청주시 지방하천팀 주무관은 한강 물을 끌어 쓰는 청계천을 운영하는 서울시는 물값을 한푼도 내지 않는데 청주는 꼬박꼬박 물값을 내고 있다. 무심천 유지도 공익성이 큰 만큼 물값을 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서현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서기관은 물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전제 아래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규제를 합리화하고 있다. 자치단체 등과 협의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2023 01 11 ( )  
01

# 江原日報

## 특별자치도법 181개 조항 공개 임박

국회의원실 설명회 마치고 11·13일 권역별 도민 공청회  
산림 등 4대 핵심규제 개선·첨단산업 육성 특례 등 담아

속보=강원특별자치도의 권한·사업특례(본보 10일자 1면 보도)를 담은 181개 법 조항의 공개가 임박했다. ▶관련기사 2면

181개 조항에는 산림·환경·군사·농업 등 4대 핵심규제 개선, 첨단전략산업 육성 특례, 접경지·폐광지 등의 지역 현안 및 숙원사업 해결, 행정·재정 및 교육 특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져 지역의 관심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

강원도는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강원지역 국회의원실 보좌관, 비서관들에게 강원특별법 개정법안과 권한·사업특례를 설명하고 향후 법안 발의 시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강원특별법 개정안에는 환경, 산림, 국방, 농지 등 4대 핵심규제 개선 방안, 첨단지식산업, 관광·문화, 농·축·해양·수산, 폐광지 개발, 균형발전, 행정·재정 교육 분야의 특례가 담겼다. 법 조문만 300쪽이 넘는 정도로 방대한 분량인 것으로 전해진다.

특례의 대표적 사례로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지의 규제 해소와 개선을 위한 내용'이 꼽힌다.

원주 문막과 부론 일부 지역이 물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공장설립승인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수도법, 물환경보전법, 한강수계법 등을 개선할 수 있는 특례 등이 반영될 예정이다.

# 江原日報

## 특별자치도법 181개 조항 공개 임박 -1면에서 계속

또 재정 확대에 대한 권한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권한 이양사업과 특례사업을 보다 명확히 구분해야 하고 다른 법안들과의 상충되는 부분을 풀어 나가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의견들이 국회의원실에서 제기됐다.

강원도는 11일부터는 18개 시·군

또 법무부의 권한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배정 권한 이양',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특구 지정 권한 이양', '환경영향평가 특례', '산지관리 권한 이양', '산림문화 휴양 특례', '국제교육특구 지정 운영 특례' 등도 포함됐다.

다만 이날 국회 설명회에서는 법

안에 대한 우려도 일부 제기됐다.

181개 조항이 방대하고 정부와의 개별협상에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어 핵심특례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최기영·이하늘기자

2면에 계속

2023 01 11 ( )  
02

을 권역별로 나눠 강원특별법에 담긴 특례에 관한 공청회를 연다. 11일 오전 10시 영월군청 대회의실에서 폐광지역권, 오후 3시 평창문화예술회관에서 내륙권 공청회가 개최된다.

13일 오전 10시에는 고성군청 대회의실에서 접경지역권, 오후 3시

에는 속초시청 대회의실에서 동해안권 공청회를 갖고 도민 의견 수렴에 나선다. 다만 주민 공청회에서 개정안 자체는 공개되지 않는다. 강원도는 도민 의견 수렴까지 마친 후 181개 조항에 대한 일부 수정을 거쳐 빠르면 이달 말, 늦어도 2월 중에는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 '강원분권, 스위스에서 배운다' 포럼 /

## “특별자치도 성공 주민 이해·참여 중요”

미겔 라 플란트 주한 스위스 부대사 밝혀

‘미겔 라 플란트’ 주한 스위스 부대사(사진)가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분권을 이룰 수 있도록 주민의 참여 의식을 높이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을 6월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준비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겔 라 플란트 주한 스위스 부대사는 10일 강원연구원을 방문해 현진권 원장과의 대담에서 분권에 대한 주민의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강원포럼 ‘강원분권, 스위스에서 배운다’의 기조연설에 앞서 진행된 현진권 원장과의 대담에서 미겔 라 플란트는 “스위스는 베른주, 제네바주 등 총 26개의 칸톤(자치단체)이 고유한 전통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 근본이 바로 가장 작은 마을 단위인 ‘코뮌’의 구성원들이 스스로 결정

하는 것”이라며 “스위스는 700년의 자치 역사를 거치며 지금의 자치분권을 이뤄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민 스스로 총회를 통해 학교, 지역도로, 건설 등 주민 복지와 관련된 사안을 갈등 없이 결정하는 등 완벽한 주민자치를 실천할 때 중앙정부에 재정 독립 등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진권 강원연구원장이 강원도 40년 숙원인 양양케이블카 사업이 아직도 설치되지 않았다고 설명하자 스위스의 사례에 대해 소

개했다. 미겔 라 플란트 부대사는 “자치단체에서 케이블카가 설치되는 경우, 최초 찬반 의견 과정은 매우 신중하지만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의결이 이뤄지면 빠르게 진행된다. 스위스의 케이블카는 그렇게 설치된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모델을 스위스로 삼고 있는 강원연구원은 이날 강원포럼 ‘강원분권, 스위스에서 배운다’를 마련해 미겔 라 플란트 주한 스위스 부대사가 기조연설을 했다. 이어 신중섭 강원대 명예교수, 이기우 인하대 명예교수, 유승각 강원연구원 연구위원, 박상용 강원연구원 연구위원, 황규선 강원연구원 연구위원이 각각 스위스 사례를 통한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 방향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서울=이무현기자 trustme@

2023 01 11 ( )  
17

## 강원도민일보

# 속초항 크루즈사업 3년 5개월만에 재개

**금지조치 해제 후 첫 입항  
3·4·6·10월 총 6회 예정  
관광객 1만명 이상 발길 기대**

코로나19로 3년여간 막혀있던 속초항 크루즈사업이 오는 3월 재개될 전망이다.

시는 오는 3월 13일 오전 8시 2만 9000t급 크루즈인 아마테아호가 속

초항에 입항한다고 10일 밝혔다.

아마테아호에는 승객 620명, 승무원 284명 등 총 900여명이 승선하며 13일 오전 8시 속초항에 들어온 뒤 이튿날 오후 2시 부산으로 떠난다.

이어 4월 실버위스퍼호 (2만 8000t 급), 6월 코스타세레나호 (11만 t급) 3회, 10월 웨스터담호 (8만 2000t 급) 등 총 6회 크루즈가 속초항에 들어올 예정이다. 1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속초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속초항 크루즈 사업은 지난 2017년 속초항국제크루즈터미널이 준공되면서 시작됐다.

준공 첫 해에는 코스타빅토리아호 (7만 5000t급) 등 총 크루즈가 11회 입출항 했지만 2018년에는 총 3항차로 곤두박질 쳤고, 2019년에는 총 5회에 그쳤다.

이후 코로나19가 창궐한 2020년부터는 관광객의 발길이 완전히 끊어졌다.

이에 따라 계획대로 크루즈 입항이 이뤄지면 3년 5개월여만에 속초항 크루즈사업이 재개된다.

시 관계자는 “아마테아호는 크루즈 입항 금지조치 해제 이후 국내에 입항하는 첫 외국적 크루즈로 해수부 등 관계기관에서도 관심이 높다”며 “시 승격 60주년 행사와 연계해 의미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강원도 및 강원도관광재단과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주석 jooseok@kado.net

# 강원도민일보

2023 01 11 ( )  
/ 21

## 반도체 산업, 기업 유치에 관건

-클러스터 구축, 대기업 입주 경쟁 뛰어들어야

강원도와 원주시가 반도체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추진하고 있는 클러스터 구축 등 기반 확충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전망을 밝게 합니다.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경제 파급 효과가 큰 반도체 산업을 일으키는 계획에 도민들의 관심과 기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선 기업 유치가 핵심입니다. 영업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고, 입지장점을 홍보하는 활동을 서둘러야 합니다. 더불어 파격 인센티브 제공을 포함해 유치전을 본격화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도는 원주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면적은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100만평(330만㎡) 규모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려 했으나 최대 약 240만평(800만㎡)으로 규모를 재조정했습니다. 기존 부론일반산업단지과 국가산업단지 합산 면적은 134만1000㎡로, 신규 부지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도는 기업혁신파크 내에 660만㎡의 산업용지를 확보, 신규 부지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를 토대로 부론일반산단과 국가산단은 소재·부품·장비 등 소부장 기업, 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집적단지를 조성하고, 신규 부지에는 삼성 등 대기

업의 제조공장을 유치해 최대 800만㎡ 규모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것이 도의 구상입니다. 용인에 조성 중인 SK반도체 공장의 2배에 달하는 규모로, 기업 활동의 토대가 될 것으로 평가합니다.

특히 강원도가 신규반영 증액이 필요한 예산 가운데 제1순위로 꼽았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반도체교육센터 건립' 예산 200억 원을 국회에서 확보했습니다. 예산 확보는 반도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기반을 갖추었다 해도 기업이 오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서울 경기 지역을 선호하는 반도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비싼 전략이 필요합니다.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 지자체와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역마다 연구 개발 지원과 정밀 제조 산업 등을 내세워 유치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행정력과 정치력을 동원해 전선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유치 활동은 행정적인 작업을 마친 뒤 단계적으로 진행할 성격의 일입니다. 반도체 대기업을 상대로 입지와 기반 시설의 장점을 홍보하고,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해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어야 할 때입니다.

# 江原日報

2023 01 11 ( )  
/ 19

## 새해도 치솟는 물가, 고삐 죄지 못하면 민생도 없다

새해 들어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에 물가 상승까지 겹치면서 서민들의 비명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2022년 말 기준 강원도 내 전기요금은 전년 동월 대비 18.6% 상승률을 기록했다. 도시는 33.2%나 뛰었다. 전기·가스요금은 더 오를 예정이다. 전기요금은 1월 고지분부터 kWh당 13.1원씩 또 비싸진다. 가스요금도 2분기부터 인상이 예고됐다. 자영업자들로부터 온풍기 가동을 중단하고 음식 값 등을 올리고 있지만 더 인상은 버티기 어렵다는 하소연이 쏟아지고 있다. 소득이 낮을수록 전기·가스요금 인상에 대해 느끼는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 2022년 기준 3분기까지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가 연료비로 지출한

금액은 월평균 6만6,950원으로 전년 동 기간(5만9,588원) 대비 12.4% 증가했다. 반면 이 기간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연료비는 6.8%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뿐만이 아니다. 설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식탁 물가에 큰 영향을 주는 채소와 가공식품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여기에 세제와 샴푸 등 생필품과 콜라·냉동만두·우유·유제품 등 먹거리 가격도 잇따라 꿈틀대고 있다. 설을 쇠는 것이 겁날 정도다. 한국물가협회가 전국 전통시장 8곳에서 차례용품 29개 품목 가격을 조사한 결과 설 차례상 비용(4인 가족 기준)은 25만4,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설 차례 비용 24만290원에 비해 5.8%(1만4,010원) 수직상

승했다. 선물세트 도매 값 역시 10% 이상 뛰며 이번 설 명절 선물을 포기하겠다는 업체까지 나오고 있다. 이미 오를 만큼 올랐다 싶은데도 끝이 아니다. 다락같이 치솟는 물가로 서민들의 삶이 더 힘들게 됐다. 지난해부터 팽팽해진 살림살이는 파탄 날 지경이다. 2022년 연간 물가 상승률은 5.1%로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7.5%) 이후 24년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새해 벽두부터 공공요금 인상이 물가 상승에 기름을 부으면서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다. 물가 상승은 가계의 실질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공공요금 인상은 서민들 삶을 더욱 궁핍하게 한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은 원가 상승 압박으로 채산

성 악화와 매출 하락을 우려하고 취약계층은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설 물가 잡기 대책이 시급하다. 정부와 지자체가 물가 관리에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체감 물가는 여전히 뛰고 있다. 물가의 고삐를 죄지 못하면 민생도 없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 물가 안정과 민생은 가장 우선해야 할 분야다. 정부는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3.5%로 잡고 있으나 올해도 전년에 이어 당분간 5%대 고물가가 지속될 전망이 우세하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1.6%에 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고물가는 경제를 침체의 늪에 빠트릴 위험이 크다. 물가 안정이 우리 경제의 최우선 과제다.

공공요금 인상에 채소·가공식품 가격 올라  
설 차례 비용 지난해 비해 5.8% 상승  
팽팽해진 서민 살림살이 이젠 파탄 날 지경